2 공 통

2003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영 역

공 통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2 | | | |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은?

〈 보 기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① 고운 임이 고개를 넘어 떠나간다.
② 상사병 난 임이 고개를 넘어 떠나간다.
③ 임을 그리워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 떠나간다.
④ 사무치게 그리운 임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떠나간다.
⑤ 고운 임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넘어 떠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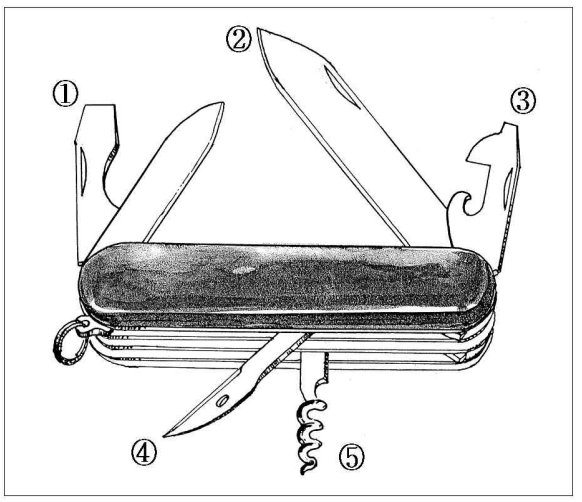
2. (물음) 총장의 발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① 첫 번째 학생 ② 두 번째 학생
③ 세 번째 학생 ④ 네 번째 학생
⑤ 다섯 번째 학생

3. (물음) '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비'가 덧붙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다 귀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부자나 거지나 더 잘살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③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라고 해서 모두 아는 것이 같겠습니까?
④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⑤ 개를 죽인 사람도 다 까닭이 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생각하셨습니까?

4. (물음) 이 설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통신 언어는 빠르고 간결한 의사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② 통신 언어 중에는 우리말 문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
③ 통신 언어는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통신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⑤ 통신 언어 때문에 세대 간의 의사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6. (물음) 이 좌담에서 사회자가 한 역할을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ㄴ. 관련 있는 화제를 유도하여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ㄷ.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ㄹ. 핵심 화제의 개념을 소개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7. 다음 만화를 소재로 글을 쓸 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시다.
② 바쁠수록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입시다.
③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하는 자세입니다.
④ 남에게 사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⑤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한 사후 봉사입니다.

8. 사회 수업에 핵가족화 현상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개요를 작성한 후에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더 접하였다.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제목 : 핵가족화의 영향과 대책
Ⅰ. 서론 :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Ⅱ. 본론
 1. 가정의 민주화 - 긍정적인 면
  가. 여성의 지위 향상
  나. 개성과 창의성 존중
 2.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 현상 - 부정적인 면
  가.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나. 노인 소외 문제
Ⅲ 결론 : 가족 공동체 의식의 강화

〈자료 1〉 이혼율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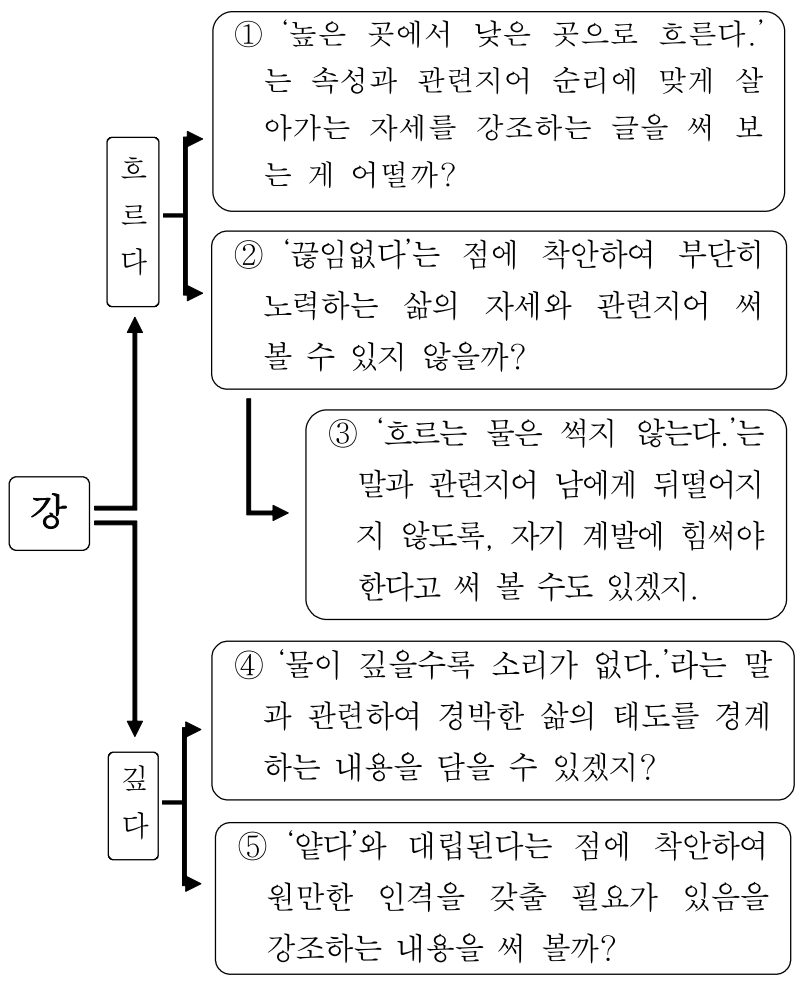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1년
이혼율	4.34	5.66	11.8	41.7

〈통계청 자료(2002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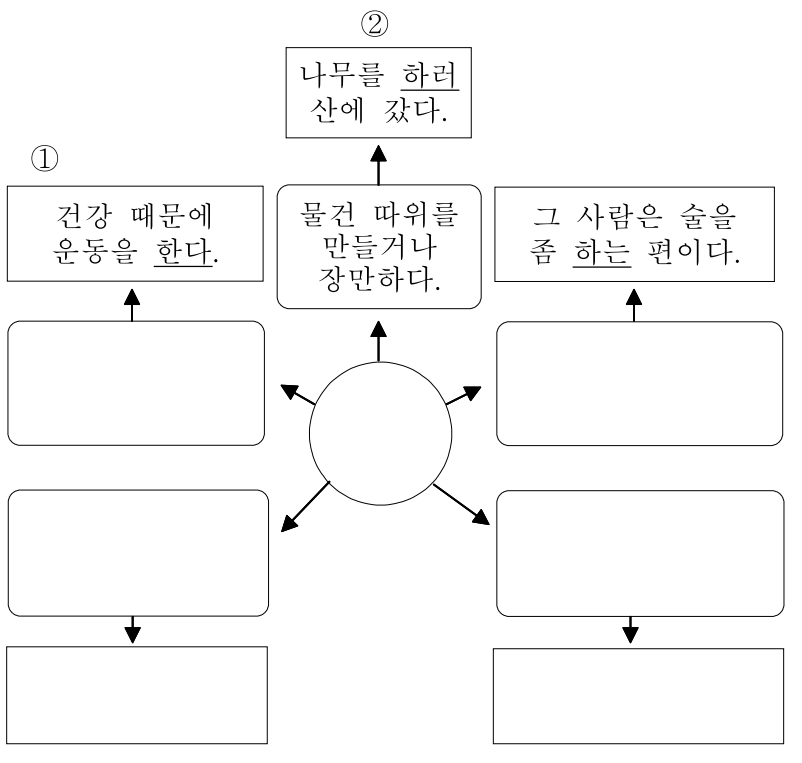
〈자료 2〉
한 사회 문제 연구 기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기관은 청소년 범죄율은 이혼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신문에 실린 기사〉

① Ⅰ에 '이혼율 증가의 심각성'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② Ⅱ-1의 '가'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녀 교육'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③ Ⅱ-1의 '나'에 '가정에서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Ⅱ-2의 '나'에 '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⑤ Ⅱ-2에 '다'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가족 해체와 청소년 문제'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9. '강(江)'을 소재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구상한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0.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의미를 조사하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1. '대나무'를 소재로 한 편의 시를 쓰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여 완성한 것은?

〈 보 기 〉

1. 대나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할 것.
2. 대나무를 사람에 비유할 것.
3. 자신에 대한 성찰과 소망을 담을 것.

① 푸르고 푸른 잎새 곧디 곧은 줄기여
눈 내린 겨울에도 같은 빛깔 한 모습
뜬구름 좇는 무리들아 대나무를 닮아라.

② 한파에 변치 않는 푸른 잎 곧은 줄기
세상의 유혹 앞에 의연한 지사(志士)여
가슴속 부끄러운 티끌 다 씻어 주소서.

③ 나무도 아니면서 푸른 풀도 아니고
그 속은 비었어도 꺾여지지 않는구나
자연의 오묘함은 우주의 섭리(攝理)러라.

④ 봄 들판 기화 요초 갖가지 향기 속에
세상 시름 망각하고 꿈속같이 거닐 때
죽마(竹馬) 타고 놀던 시절 아련히 떠오르네.

⑤ 눈 내린 마당에 서 있는 저 대나무
비어 있는 마디마다 푸르른 그 잎새
눈 속에 그 푸르름이 오늘따라 더 좋구나.

12. 다음은 퇴고의 한 사례이다. 고쳐 쓴 결과가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줄거리〕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였으나,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속세에 유배되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승상이 된 후 부마가 된다. 그 동안 그는 8선녀의 화신인 8명의 여자들을 만나 아내로 삼고 영화롭게 살다가 만년에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러던 중, 호승을 만나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으면서 꿈에서 깬 성진은 더욱 불법에 정진하게 된다.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단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북으로 바라보니 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비치었는 곳은 진 시황의 아방궁이요, 서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 뫼에 덮은 데는 한 무제의 무릉이요, 동으로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붉은 박공이 반공에 숨었는데, 명월은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가 태진비로 더불어 노시던 화청궁이라. 이 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사해로 집을 삼고 억조로 신첩을 삼아 호화 부귀 백 년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나뇨?

소유는 본디 하남 땅 ㉠<u>베옷 입은 선비</u>라. 성천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제 낭자 서로 좇아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u>전생 숙연으로 모두 인연이 진하면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u> ㉢<u>우리 백 년 후 높은 대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뫼와 쇠한 풀이 되었는데</u>,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이것이 양 승상의 제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제 낭자의 옥용 화태 이제 어디 갔나뇨' 하리니 어이 ㉣<u>인생이 덧없지 아니리오</u>?

내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유에 높으니 이 이론 삼교라. 유도는 ㉤<u>생전(生前) 사업과 신후(身後) 유명</u>할 뿐이요, 신선은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 시황, 한 무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내 치사한 후로부터 밤에 잠 곧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이 필연 불가로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 좇음을 효칙*하여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께 예를 하여 불생 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뛰어나려 하되, 제 낭자로 더불어 반생을 좇았다가 일조에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남이로소이다."

(중략)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홀연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 왈,

"평생 고인을 몰라 보시니 귀인이 잊음 헐탄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노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u>승상이 가로되</u>,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녔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녔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호승이 소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녘 묏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

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서로 희롱하나뇨?"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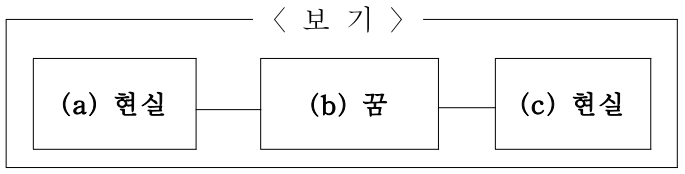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깍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 신퇴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13. 윗글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파악할 때, 이들의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 보 기 〉



① (b)는 (a)와 (c)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b)를 통해서 (a)보다 높은 차원의 (c)에 도달한다.
③ (a)를 보완하는 것이 (b)이고, (c)를 보완하는 것이 (a)이다.
④ (b)와 (c)는 연관이 있는 내용이지만, (a)는 별개의 이야기다.
⑤ (b)를 통해서 (a)는 결코 (c)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양소유는 스스로 처첩들의 곁을 떠나려 하였다.
② 성진은 꿈을 꾸기 전에 인간의 부귀한 생활을 부러워하였다.
③ 양소유의 처첩들은 성진과 함께 연화 도량에서 도를 닦았다.
④ 양소유는 관직에 나아간 후 잠시도 벼슬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⑤ 성진은 꿈속에서 하남 땅의 양소유가 되어 속세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

15.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고 난 후 의견을 나눈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 보 기 〉

손〔客〕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江)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소자 말하되 "손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으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되 마침내 줄고 늚이 없으니, 변하는 데서 보면 천지(天地)도 한 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변하지 않는 데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또, 천지 사이에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山間)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뜨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造物主)의 다함이 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바로다."

- 소식(蘇軾), 〈적벽부〉의 일부

① 이슬 : 〈보기〉의 '손'과 '양소유'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네.
② 누리 : 〈보기〉의 '소자'는 '양소유'에게 관점을 바꿔보라고 충고할 것 같은데.
③ 소담 : 깨우침을 준다는 면에서 〈보기〉의 '소자'와 '사부'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④ 슬기 : 〈보기〉의 '손'과 '양소유'는 인간의 유한함을 탄식하며 자연의 영원함을 부러워하고 있어.
⑤ 보람 : '성진'은 종교적 삶을 추구하고 있고, 〈보기〉의 '소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적 삶을 지향하고 있군.

16. ㉠~㉤과 관련하여 한자 성어를 떠올려 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보니 '포의한사(布衣寒士)'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② ㉡의 상황을 가리켜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겠지.
③ ㉢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지.
④ ㉣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고사 성어를 연상시키는군.
⑤ ㉤은 유교(儒敎)에서 추구하는 '입신양명(立身揚名)'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군.

17. 윗글을 희곡으로 각색한다고 할 때 ⓐ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이나 태도는?

① 분노에 떨며
② 의아해 하며
③ 안타까워하며
④ 부끄러워하며
⑤ 측은하게 여기며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梨니花화는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洛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샹臺딕예 올라 안자,
日일出츌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祥샹雲운이 집픠는 동, 六뉵龍뇽이 바퇴는 동,
바다히 써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텬中듕의 티쓰니 毫호髮발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 詩시仙션은 어딕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ᄂᆞ니.
天텬地디間간 壯장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홀셔이고.
斜샤陽양 峴현山산의 躑텩躅툑을 므니불와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ᄂᆞ려가니,
十십里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텨 다려,
長댱松숑 울흔 소개 슬ᄏᆞ장 펴뎌시니,
믈결도 자도 잘샤 모래롤 혜리로다.
孤고舟쥬 解히纜람ᄒᆞ야 亭뎡子ᄌᆞ 우히 올나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믄 겨틔 大대洋양이 거긔로다.
㉡ 從둉容용ᄒᆞᆫ댜 이 氣긔像샹, 闊활遠원ᄒᆞᆫ댜 뎌 境경界계,
이도곤 ᄀᆞ준 딕 ᄯᅩ 어듸 잇닷 말고.
紅홍粧장 古고事ᄉᆞ를 헌ᄉᆞ타 ᄒᆞ리로다.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쇽이 됴흘시고,
節졀孝효旌졍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眞진珠쥬館관 竹듁西셔樓루 五오十십川천 ᄂᆞ린 믈이
太태白빅山산 그림재를 東동海히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멱의 다히고져.
王왕程뎡이 有유限ᄒᆞᆫᄒᆞ고 風풍景경이 못 슬믜니,
幽유懷회도 하도 할샤, 客긱愁수도 둘 듸 업다.
仙션槎사를 ᄯᅴ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ᄒᆞ살가,
仙션人인을 ᄎᆞᄌᆞ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나)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탁료 계변)*에 錦鱗魚(금린어)ㅣ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한가)히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ᄒᆞᆫ 江波(강파)ᄂᆞᆫ 보내ᄂᆞ니 ᄇᆞ람이다.
이 몸이 서ᄂᆞᆯ히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江湖(강호)에 ᄀᆞ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잇다.
小艇(소정)에 그믈 시러 흘리 ᄯᅴ워 더뎌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히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江湖(강호)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濁醪溪邊(탁료 계변) : 막걸리 마시며 노는 시냇가.**
*** 누역 : 풀로 만든 비옷. 도롱이.**

1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자연을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② 자연을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④ 자연 속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탓하고 있다.
⑤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임금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의 화자와 같은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3점〕

〈 보 기 〉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聖主)를 섬기자니 즐거움 어길레라.
호올로 기로(岐路)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 권호문(權好文)

① 紅홍粧장 古고事ᄉᆞ를 헌ᄉᆞ타 ᄒᆞ리로다.
②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쇽이 됴흘시고,
③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④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멱의 다히고져.
⑤ 王왕程뎡이 有유限ᄒᆞᆫᄒᆞ고 風풍景경이 못 슬믜니,

20.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어.
②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밝히고 있어.
③ 한가로운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삶의 고통이 깔려 있어.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운치 있는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어.
⑤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21. ㉠에 표현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잘 설명한 것은?
① '시선(詩仙)'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난 세월의 무의미한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② 후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작품을 남긴 '시선(詩仙)'에 대한 경탄과 시에 대한 공감이 담겨 있다.
③ 아무리 훌륭한 시를 남긴 '시선(詩仙)'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④ 자신의 능력으로는 '시선(詩仙)'의 경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심한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⑤ '시선(詩仙)'은 가고 없지만 자신만이 그 훌륭한 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22. ㉡의 발상과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②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③ 있으라고 하였다면, 갔겠는가 그들이.
④ 훌륭하다 우리 선수, 장하도다 대한민국.
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은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변한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는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말소리나 낱말의 형태 또는 통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뜻이 바뀌는 것을 이른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코가 흐른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생략에 의한 언어적 의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코가 흐른다."에서 '코'는 '콧물'에서 '물'이 생략된 것이다.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외부 세계는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명칭이 변하지 않아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즉, 과학, 기술, 제도, 풍속 등의 변화가 명칭의 변화를 ⓐ **수반(隨伴)**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변화만 빚어 놓음으로써 언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예를 들면, 배〔船〕가 그러한 예이다. 이는 옛날의 거룻배, 돛단배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발동선, 증기선, 핵 잠수함에 이르는 모든 선박을 다 가리키게 되었다.

사회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의미 변화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를 이룬 계층이 바뀜으로 의미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어휘가 적용되는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왕'은 왕정(王政)의 최고 책임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 말의 사회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 **일반화(一般化)**하여 쓰게 되면, 그 의미가 확장된다. 그리하여 '암산왕, 광산왕'과 같이 '제1인자'라는 뜻을 가지거나, '왕방울, 왕거미'와 같이 '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도 있다. 이는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와 표리(表裏)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낱말의 의미 변화에서 볼 수 있다.

끝으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의미가 변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호감에 의한 것과 금기에 의한 것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많은 관심이나 ⓒ **호감(好感)**을 가질 때, 자연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전연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을 입에 올리게 된다. 이는 한 때 '나일론'이 인기가 있었을 때, '나일론 참외, 나일론 박수'와 같이 '나일론'이란 말이 사방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는 한 마디로 ⓓ **재명명(再命名)**에 의한 의미 변화라 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피하고 다른 말로 대용함으로써 의미가 바뀌는 경우와 불쾌한 것을 직접 지시하기를 꺼려 ⓔ **완곡(婉曲)**하게 표현함으로써 의미 변화가 빚어지는 경우, 미풍 양속을 해치지 않으려고 돌려 표현함으로써 그 뜻이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 우리는 우리말의 의미 변화를 그 원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말이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의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3. 다음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올라온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 중 잘못된 것은?

□ 질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번호	구분	내 용
①	질문:	국어의 의미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좀더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②	질문:	국어의 의미가 변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있습니다.
③	질문:	옛날에는 없던 '컴퓨터', '인터넷' 등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어떤 원인에 해당되나요?
		예,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④	질문:	'아침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침'이란 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을 먹는다'에서의 '아침'은 '아침밥'의 '밥'이 생략되어 '아침'만으로 '아침밥'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의미가 변한 예죠.
⑤	질문:	'재치 박사'라고 할 때 '박사'는 그 단어가 지닌 원래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의미 변화에 해당되나요?
		예, 이것은 적용되는 사회적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서, 사회적인 것이 원인이 된 의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1] 2 3 4 5 6 7 8 9 10

24. 윗글의 중심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언어는 연속된 외부 세계를 끊어서 인식한다.
②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표현할 수도 있다.
③ 언어는 구체적인 사물을 추상화 과정을 거쳐 만든 개념 단위로 운용된다.
④ 언어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⑤ 언어에서 음성과 의미의 결합 관계는 사회적 약속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25.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연두'를 '마마'라고 한다.
② 지방 출신인 친구는 〔싸움〕이라는 발음이 되지 않아 늘 〔사움〕이라고 발음한다.
③ 푸른색과 초록색은 다른데도 우리는 관습적으로 '푸른 산 푸른 하늘'이라고 말한다.
④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나도 모르게 '거시기'라는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⑤ 채팅을 할 때 또래끼리의 유대감을 위해 '방가'나 '즐팅'과 같은 말들을 사용한다.

26. ⓐ~ⓔ의 의미를 추리한 것 중, 제시한 '단어 의미 추리 전략'과 '적용한 실제'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단어 의미 추리 전략>	<적용한 실제>
전후 문맥을 통해 추리한다.	① ⓐ 수반(隨伴) : 과학 기술 등의 변화가 명칭의 변화까지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니까,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긴다'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군.
	② ⓑ 일반화(一般化) : 그 앞에서 단어의 사회적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특정 범위에서 사용되던 것이 그 외의 나머지 범위에서도 사용된다.'는 의미가 되겠군.
한자어인 경우 자신의 한자 지식을 활용한다.	③ ⓓ 재명명(再命名) : '재'는 '다시'라는 의미고 '명명'은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니까, 결국 '다시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가 되겠네.
일부분의 뜻을 알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의미를 추리한다.	④ ⓒ 호감(好感) : '호(好)'는 '좋다'는 뜻이니까, '호감'은 '좋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⑤ ⓔ 완곡(婉曲) : '완'은 '순하다', '곡'은 '굽다'라는 뜻이므로 '부드럽게 굽힘'이라는 뜻이겠지.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젠가 선거를 앞둔 유럽의 모 정당에서 개미를 그들의 상징물로 정한 일이 있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 빗대어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낱 우화일 뿐이다. 이솝은 베짱이를 여름내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만 부르는 곤충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베짱이가 쉬지도 않고 계속 노래를 해야 하는 까닭은 세월이 좋아 놀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 암컷들에게 잘 보여 더 많은 자손을 퍼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느라 자신의 위치가 ⓐ **포식 동물**들에게 알려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무 그늘에 숨어 ⓑ **종족 번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인 일은 일찌감치 던져 버리고 그저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 표 모으는 일에만 열심인 듯한 직업 정치인들의 이미지엔 오히려 베짱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모름지기 정치를 한다는 이들은 대개 한 밑천 마련한 다음 그저 허구한 날 표를 좇는다. 그리고 ㉠ 유권자를 위하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정권 획득을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히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 **베짱이 수컷** 역시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먹어 몸을 살찌운 다음 일단 ⓓ **베짱이 암컷**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노래만 부른다. 이 ⓔ **베짱이의 노래**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솝 우화가 아니더라도 개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개미굴 앞에 앉아 내려다보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개미들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미들은 집단 전체로 볼 때 부지런한 것이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볼 때는 결코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다. 물론 종(種)에 따라 다르고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집단이건 일하는 개미들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 비해 두 배는 족히 되는 개미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

또, 개미 사회에서는 여왕개미와 일개미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구분된다. 일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왕개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일개미와 여왕개미는 유전적으로는 똑같은 암컷이다. 다만 어려서 차세대 여왕개미로 선택된 개미는 다른 개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받아, 크고 강하게 자랄 뿐이다. 그렇게 일단 여왕이 되면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난 다른 일개미들을 부리며 홀로 번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일개미들이 알을 낳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식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왕개미가 그들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화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 여왕물질이라는 일종의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태할 수 없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각종 강압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여왕개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딸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가끔 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알을 낳아 기르는 일개미들이 있기는 하지만 발각되는 날에는 여왕의 가차 없는 숙청이 따른다.

한 정당이 스스로를 개미에 비유한 것은 놀고 먹는 일개미처럼 되고 싶다거나,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위에 군림하는 여왕개미처럼 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지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하는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개미들이 모두 다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② 베짱이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다.
③ 여왕개미는 여왕물질을 분비하여 일개미들의 수태를 막는다.
④ 일부 일개미들은 알을 낳기 위해 서식지를 벗어나기도 한다.
⑤ 여왕개미로 자라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28.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잘 알려진 우화를 이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군.
② 개미의 긍정적 속성보다는 부정적 속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
③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어.
④ 정당의 상징물로는 개미보다는 베짱이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군.
⑤ 우리들이 지닌 상식이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29. 글쓴이의 입장에서 ㉠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속담은?

① 어린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겠다.
②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③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④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30. ㉡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① 그가 벤처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참신한 아이디어, 둘째 과감한 추진력, 셋째 고객에 대한 두터운 신용, 이런 것들 때문이다.
② 고대 소설이란 일반적으로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작자 미상의 '춘향전' 같은 것들이다.
③ 누런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멘 사나이 셋이 학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학 나무 밑에 모았다. 그리고 긴 연설을 한바탕 늘어놓고 나서 바우를 앞에 내다 세웠다.
④ 비자나무 바둑판 중에는 간혹 갈라졌다가 다시 붙어서 뛰어난 복원력을 보이는 것이 있어 특급품 대접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31.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대응 관계가 <u>잘못된</u> 것은?

① ⓐ 포식 동물 : 집권 정당
② ⓑ 종족 번식 : 정권 획득
③ ⓒ 베짱이 수컷 : 정치인
④ ⓓ 베짱이 암컷 : 유권자
⑤ ⓔ 베짱이의 노래 : 선거 운동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일(雪日)

김남조

겨울 나무와
바람
㉠<u>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u>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나)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u>진눈깨비</u>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u>함박눈</u>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다)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3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나)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② (가), (다)에는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나), (다)의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④ (가), (나),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단호한 의지로 대응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33. 다음의 신문 기사 중, (다)의 화자가 비판할 만한 사회적 현실은?
① **사망한 지 3일 만에 발견된 70대 노인**
○○동에 사는 김 아무개 씨(71세)가 죽은 지 3일 만에 외판 영업 사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살던 김 씨가 노환으로 숨을 거뒀으나 평소 김 씨를 찾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김 씨는 죽은 후 3일 동안 방치되었던 것…….
② **마약이 부른 비극**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23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법관이 꿈이던 박 씨는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 오다 1년 전부터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퍼진 마약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들…….
③ **과속 운전이 부른 참사**
26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에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김모 씨(48세)가 승합차를 과속으로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 전복되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다시 부딪혀 11명의 사상자가 발생…….
④ **무면허 성형 수술로 인한 피해자 증가**
최근 무면허자에 의한 성형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성형 전문의 장모 씨(43세)에 따르면 그 동안 한 달에 2~3명씩 찾아오던 수술 부작용 환자들이 겨울 방학 기간이 되면서 평균 7~8명으로 늘었다는 것…….
⑤ **폭설로 인한 피해 속출**
12일 현재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예상량을 훨씬 넘는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속초시는 적설량이 80cm에 달해 교통이 두절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선이 끊어져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들…….

34. ㉮에서 영감을 얻어 〈보기〉와 같은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① '삶'과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힘든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면 어떨까?
③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도 좋을 거야.
④ 원시(原詩)에 나타난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살려야겠어.
⑤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35. ㉠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비유적 묘사를 통해 원근감을 보여주고 있다.
② 의인화된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구체적 사물을 관념적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36. ⓐ ~ ⓔ 중, 시적 이미지가 이질적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양화에서는 피는 시기가 다른 꽃을 한 화폭에 배치한다든지, 가을 풍경 속에 여름 철새인 백로를 그린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소재의 배치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동양화는 소재가 남들이 즐겨 써 오던 것이든지, 구도가 오랜 세월을 두고 정형화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반복하여 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화법(畵法)은 단순히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화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양화를 제대로 독화(讀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우의(寓意)로 읽는 법이 있다. 이것은 소재가 상징하는 바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 모란꽃이 있으면 '부귀(富貴)'로, 장미가 그려져 있으면 '청춘(靑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또 석류 열매에 씨앗이 가득 찬 모습이라든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 조롱박 그림은 자손이 번창하기를 염원하는 '다자(多子)'로 읽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동음 이자(同音異字)*의 문구로 바꾸어 읽는 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예로 '죽석도(竹石圖)'가 있다. 죽석도란 대나무를 바위와 곁들여 그린 그림으로,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려 왔다. 사실 대나무는, 바위가 있고 그늘진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바위와 함께 있는 대나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굳이 대나무와 바위를 같이 그린 이유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중국어에서 '죽(竹)'은 '축(祝)'과 음이 같고, 바위는 '수(壽)'로 읽혀 죽석도는 '축수(祝壽)'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된다.

그리고 고전 문구나 일화를 상기하며 읽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매화를 함께 그린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의 경우는 〈논어〉의 익자삼우(益者三友)와 손자삼우(損者三友)의 '삼우(三友)'를 떠올리게 하여 바람직한 친구 교제의 가르침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은 모두 이 뜻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동양화는 자연과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소재들을 단순히 조합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해서 봐야지, 이것을 ㉠도외시한 채 구도나 색감, 데생력 등 서양화적 안목으로만 감상한다면 그 의미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나)



물고기 세 마리를 그려 놓은 위 그림은 '삼여도(三餘圖)'다. 이 '삼여도'는 〈왕숙전(王肅傳)〉에 나오는 동우(董遇)에 관한 일화를 알아야 그림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동우에게 배움을 청하자 동우는 책을 백 번만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그 사람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자, 동우가 다시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여가(餘暇) — 밤, 겨울, 비 오는 날 — 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여도'는 학문하는 태도에 대하여 일깨운 그림이기 때문에 선비의 서재에 어울리는 그림이다.

*** 독화(讀畵) : 그림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면서 감상함.**
*** 동음 이자(同音異字) : 발음은 같으나 글자가 다른 것.**

3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고사(故事)를 알면 동양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
②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도 동양화 감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③ 소재의 중국어 발음은 동양화의 의미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④ 동양화를 감상하려면 서예의 여러 가지 필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⑤ 서양화적 안목에서 동양화를 감상하면 그림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38. (나)의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는?

① 책 덮고 창을 여니 강호에 배 떠 있다
왕래 백구(白鷗)는 무슨 뜻 먹었는고
앗구려 공명도 말고 너를 좇아 놀리라
②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③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맑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④ 산이 하 높으니 두견이 낮에 울고
물이 하 맑으니 고기를 헤리로다
백운이 내 벗이라 오락가락 하는구나
⑤ 청산(靑山)은 어찌하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난 어찌하야 주야(晝夜)에 긎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39. 다음 만화의 상황은 독화(讀畵) 방법 중 어떤 것을 이용한 사례인가?



① 우의적(寓意的) 방법
② 옛 글의 문구를 떠올린 방법
③ 옛 사람의 일화를 고려한 방법
④ 서양화적 안목에 바탕을 둔 방법
⑤ 동음 이자(同音異字)를 이용한 방법

40. 윗글을 읽은 영수는 할아버지의 칠순 생신에 그림을 선물하려고 한다. 영수가 선물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41.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업신여기는 태도로 흘겨봄
②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③ 달갑게 여겨 좋은 마음으로 봄
④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김
⑤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함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蘭草) 두 분(盆)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 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슨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 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래헌(茶來軒)을 찾아 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蘭)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 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雲虛老師)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이 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 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執着)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蘭)을 가꾸면서 산철—승가(僧家)의 유행기(遊行期)—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 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u>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u>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을 듯 홀가분한 해방감.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 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u>버려야겠다고</u>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 법정, 〈무소유〉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난 후 '독서 감상 일기'를 기록한 것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날짜 : 2003년 6월 00일 0요일
• 제목 : 무소유
• 지은이 : 법정
• 감상 : ⓐ이 글은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고자 하는 종교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또 난초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난을 친구에게 선뜻 내어주는 모습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불제자로서의 모습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이 글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장 나 자신이 불필요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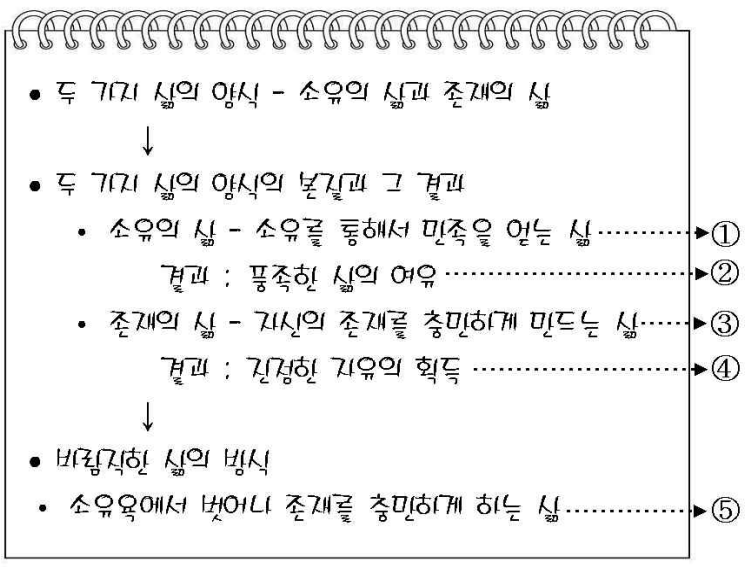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다음은 〈보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다. 적절하지 않은 항목은?

〈 보 기 〉

·문제 상황 : 법정의 '무소유'와 아래의 글을 읽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크게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으로 대별한다. 소유의 삶이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삶의 양식이며, 존재의 삶이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신의 삶 자체에서 찾으려는 삶의 양식이다. 즉, 자신의 존재를 충만하게 만드는 삶이다. 그리고 프롬은 현대인들이 소유의 삶에 치우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한다.



44. 〈보기〉의 입장에서, ㉠과 같은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자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대상이 고통 받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도 대상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②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자신의 삶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③ 대상에서 벗어난 후의 홀가분함보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겪는 고통과 번뇌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④ 대상을 사랑한다면 대상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⑤ 대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알 때 책임감 있는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

45. 다음 밑줄 친 어휘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① 땀을 많이 흘려 옷을 버렸다.
②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라.
③ 저 곳은 쓸만한 땅인데 버려 두고 있구나.
④ 아이에게 술을 가르치면 아이를 버리게 된다.
⑤ 그는 친구를 버리고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양의 유교 국가의 정치에는 다른 지역의 고대 국가와는 달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교 정치에는 종교적·주술적·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고, 내세나 천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오직 유교적인 이상 세계를 현세에 구현하는 데에만 주요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천자가 천명(天命)을 받은 존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의 도덕 정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천명이 철회되어 제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교 국가의 군주는 자기가 신권(神權)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고대 국가를 지배 군주의 세습적 가산으로 보는 이른바 가산제(家産制) 국가 이론은 유교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 물론 새 왕조의 창시자나 그 공신들이 마치 국가 전체를 새로 획득한 자산으로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서양의 사회 과학자 중에는 ㉡이런 행동을 보고 중국을 세습 가산제의 국가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은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정통 유교 국가의 정치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유교 국가에서는 강병(强兵)으로 외국을 정벌해서 인구의 증대와 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으로 설정된 일도 없었다. 북방 유목 민족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국가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유교 정치에서는 명분 없는 침략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그런 공리적인 국가 관념도 없었다. 물론 백성의 의식(衣食)을 풍족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과 천재지변(天災地變)에 대해서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유교 국가의 목표는 더 높은 차원에 있었다. 그것은 곧 요순(堯舜)이 보여 준 도덕 정치의 구현이다.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와 행정 제도는 도덕에 입각하고 도덕을 베푸는 데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는 한 마디로 말하면 덕치(德治)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덕이 있는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하고, 또 군주가 된 사람은 항상 덕을 닦아야 했다. 제도상으로도 군주의 수덕(修德)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군주는 덕이 있고 식견이 있고 판단이 빠르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교 국가에서처럼 군주의 덕(德)이 강조된 나라는 달리 없었을 것이다. 군주에 못지않게 덕이 강조되는 대상이 관리들이다. ㉢ 관료 계층은 스스로도 덕을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화하는 교육자적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마) 유교 국가는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가르친 것은 물론이고, 제왕 자신들이 직접 교화의 선봉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교화 내용은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오히려 효도와 우애, 장상* 존경(長上尊敬), 향리 친목, 근면 등의 일반적인 도덕 윤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도 지식이나 기술보다 도덕적 관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교 국가는 관료 계층이 백성을 교화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백성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를 당연히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장상(長上) :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어른.**

46. 문단의 핵심 화제를 잘못 정리한 것은?

① (가) - 유교 정치의 합리성
② (나) - 유교 국가 군주의 역할
③ (다) - 유교 국가의 목표
④ (라) - 유교 국가 군주·관리의 자질
⑤ (마) - 유교 국가의 백성 교화

47.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유교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매우 존중하였다.
② 유교 국가의 백성들은 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았다.
③ 유교 국가에서 정치적 윤리는 군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④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유교 국가의 지배층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⑤ 유교 국가는 부국강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무기력하였다.

48. ㉠과 같은 생각이 나타난 것은?

① 법이란 당연히 조정에서 먼저 지켜야 한다. 나라의 큰 잔치나 외국 사신 접대 같은 일은 모름지기 국가 재정에서 마련해야 한다. 백성에게는 정당한 세금 이외에는 더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익
② 대신(大臣)과 소신(小臣)이 임금 앞에 있을 때에 소신이 말한 것 중에 그른 것이 있으면 대신이 그것을 반론하여 막아야 하고, 물러났을 때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신은 역시 깨우쳐 주어야 한다. — 조광조
③ 민심이 돌아와 붙으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지만,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지나지 못하고 필부(匹夫)가 된다. 군주와 필부 사이는 털끝만큼 떨어져 있을 뿐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 김시습
④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륙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하여 목자를 송영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자면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 정약용
⑤ 왕이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면, 반드시 진리를 탐구하고 도리에 밝은 인물이 나타나 배운 것을 제대로 실행할 것이다. 또한 겉만 꾸미는 자는 감히 간계를 부릴 수 없어서 모두 거짓됨을 깨끗이 버릴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옳고 그름도 정해질 것이다. — 허균

49. ㉡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여 원리 파악에 실패하였다.
②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
③ 예외적 사실을 근거로 대상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였다.
④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고 상상을 통해 이론을 이끌어 내었다.
⑤ 현상을 무시하고 본질에만 집착하여 대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50.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백성들이 무지(無知)하므로
② 관료 계층이 덕치 구현의 주체이므로
③ 관료는 백성 교화 결과에 따라 관직이 바뀌므로
④ 국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야 하므로
⑤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는 백성들이 수긍하여야 실현되므로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줄거리〕 응칠은 처자가 있던 성실한 소작농이었지만, 빚이 늘어 결국 야반도주하였다가 처자와도 헤어지고 유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동생이 그리워 찾아오게 된다.

㉠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부리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다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새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괴때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역마 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오 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갖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마는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라 하였다. 그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찍어 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끄을렀다. 그 위에다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오십사 원을 갚을 길이 없으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게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닫고 ㉢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다 쓰러져 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언내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언내를 잡겠수, 그러니 서루 갈립시다, 하는 것이었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 없다. 그보담은 서로 갈리어 제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뜬하리라. ㉤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 가서 젖 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히 있으면 혹 연분이 닿아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훤해지자 그는 툭 털고 일어섰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게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 맬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는 걱정도. 호동가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구, 닭이구, 개구,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본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 김유정, 〈만무방〉

5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등장 인물이 사건을 직접 서술하였다.
② 당대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배경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였다.
④ 두 인물의 이야기를 대비시켜 제시하였다.
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52. 윗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응칠이가 세간을 챙겨 집을 떠나는 모습
② 응칠이가 가족과 함께 유랑 걸식하는 모습
③ 응칠이가 수확한 곡식을 보며 한숨짓는 모습
④ 응칠이가 이웃에게 빚을 얻으려고 다니는 모습
⑤ 응칠이가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잡혀가는 모습

53. '응칠이'가 처한 정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②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③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녘에 /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④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⑤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

54. ㉠~㉤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5. 윗글의 밑줄 친 말들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은?

① 역마 직성 :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타고난 성질
② 애간장 : 초조한 마음 속
③ 물목대로 : 물건의 목록 그대로
④ 매팔자 :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팔자
⑤ 근대러 : 성가시게 하러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제 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체세포복제술이다. 간단히 말하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대신, 핵을 제거한 난자와 체세포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융합해 수정란을 만든다. 난자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유전정보는 체세포의 제공자와 같게 된다. 수정란은 대리모에 이식되고 이후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거쳐서 복제된 개체가 태어난다.

1996년 최초의 복제 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후 체세포복제술은 생명공학의 핵심 분야가 됐다. 이 방법에 의해 1998년 일본에서 복제소, 미국에서 복제쥐가 태어났고 199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복제염소가 선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이 1999년 복제젖소 영롱이와 복제한우 진이를 연달아 탄생시켰고 2002년에는 경상대 축산 과학부 김진회 교수팀이 복제돼지를 선보였다. 우리 나라도 복제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복제 연구는 고품질의 가축을 만들거나 유용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과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복제할 때는 종교적·윤리적·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복제 인간의 등장으로 인류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복제는 성공률이 낮고 유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그레이엄 불필드 소장이 복제아기 한 명을 탄생시키는 데 4백 개 이상의 난자와 50명 이상의 대리모가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산되지 않고 무사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복제된 개체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급성 설사 등을 보이며 수일 내에 사망하는 '급사 증후군'과 정상 체중의 2배 이상으로 있다가 얼마 살지 못하는 '거대 체중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팔·다리·간·심장·폐·생식기 등에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체세포복제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불완전한 기술이라는 의미다.

㉮ 외형적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는 복제인간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제된 개체는 텔로미어*의 길이 때문에 생체 나이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텔로미어는 노화와 강력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염색체의 끝 부분으로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 즉 나이가 든 개체를 복제하면, 텔로미어가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살 어미의 체세포로부터 복제한 돌리의 실제 나이는 6살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황우석 교수는 "복제동물을 조사하면 텔로미어가 반드시 짧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긴 경우도 있다."며, "복제하려는 대상에서 추출한 세포의 분열시기에 따라 텔로미어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인간 복제를 추진 중인 연구진은 복제아기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황우석 교수는 "복제된 개체의 정상 여부는 태어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면서 복제된 아기가 기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난 개체가 만약 정상이라 해도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실패된 복제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텔로미어 : 염색체 말단 부위. 노화할수록 길이가 짧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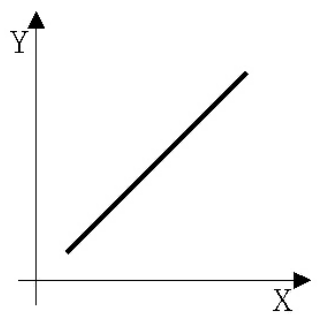
5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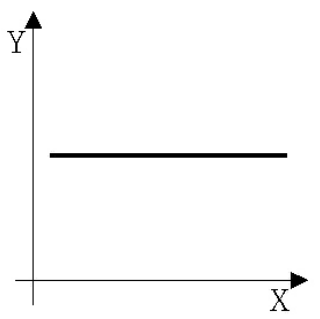
① 예시와 인용을 통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③ 여러 가지 대상들을 관찰하여 그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④ 대립적인 의견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⑤ 먼저 가설을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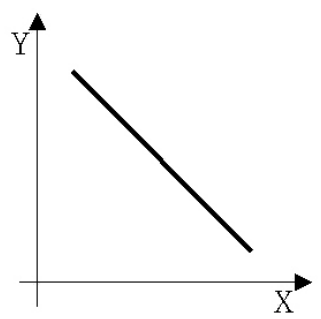
57. 윗글의 내용을 통해 알기 어려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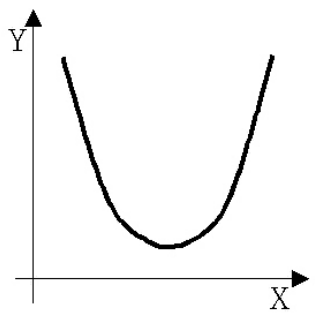
① 동물을 복제하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② 복제 개체들의 외형은 판에 박은 듯 똑같을 것이다.
③ 체세포 복제는 긍정적이고 유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④ 우리 나라의 복제 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⑤ 현재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과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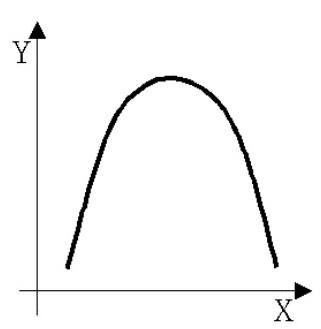
58. ㉮에서 텔로미어의 길이와 생체 나이의 상관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단, 텔로미어 길이를 X, 생체 나이를 Y로 한다.) [1점]

① 

② 

③ 

④ 

⑤ 

59.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둠 토론을 하기로 했다. 〈보기〉는 체세포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서론 : 체세포 복제의 현황
본론 :
　1. 체세포 복제의 유용성
　　(1) 식량 문제 해결
　　(2) 인공 장기 제공을 통한 불치병 해결
　2. 체세포 복제에 따르는 문제점
　　(1) (　　)
　　(2) (　　)
　　(3) (　　)
　　(4) (　　)
결론 : 체세포 복제의 금지 방안 마련

① 환경 오염의 심화
②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
③ 기형적 개체 출현의 위험성
④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만연
⑤ 생명 탄생이 지닌 신성한 영역의 침범

60. ㉠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은 것은?

① 비견(比肩)할 만한
② 유추(類推)할 만한
③ 비례(比例)할 만한
④ 유도(誘導)할 만한
⑤ 비준(比準)할 만한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